

현장시선



김 형 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지부 사무국장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주용품들이 미리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찾아 가격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물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발맞춰 제주도에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회복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도내의 소비자단체들은 전통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명예감시원 활동을 시작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성수품 중에서 사과, 배 등 청과물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와 농·축·수산물 등의 표시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활동

판 게시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가격 표시제 위반 등이다.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필자가 속한 소비자단체에서도 전통시장인 오일장에서 원산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부담을 덜어 주기를 바라면서 제주 장바구니 물가 조사 결과를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장바구니 물가는 도내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가격 비교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이뤄지므로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의 협력으로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가 가벼워지길 기대한다. 물가 감시활동을 하는 중에 간혹 가격 표시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거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를 발견하곤 한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

는 거짓표시와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는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판매를 한 경우에 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거짓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 등을 하면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거제행위 금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 구매 후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올바르게 취해야 할 행동요령이 있다. 첫째는 불만이나 피해 관련 사례 및 정보, 법·규정 등을 찾아보고 보상과 관련해 본인의 불만이나 보상요구가 적정하

는 구매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사항을 모두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셋째, 언제·어디서·어떠한 물품을 구입했는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업자에게 피해 및 불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넷째, 문제해결을 위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관에 불만처리를 의뢰한다는 것을 통보한다. 다섯째, 더 이상 사업자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 처리를 요청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소비자 피해발생 시 배상을 위한 소비자상담을 받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야말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첫걸음이다.

사설

심상치 않은 화재, 사소한 부주의가 화 자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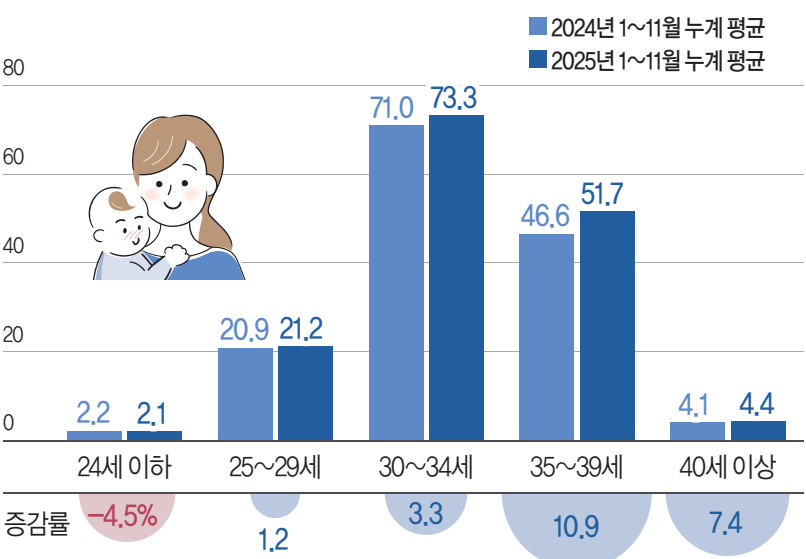
올 들어 화재가 심상찮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화재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는 6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보다 14건, 26.9% 늘었다. 화재에 따른 사상자는 사망 2명, 부상 1명 등 3명이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도 6억 61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피해는 지난해 1월 부상자 4명, 재산피해 4억3100만원에 비해 사망자는 2명, 재산피해액은 2억 3000만원 늘어난 것이다. 화재장소별로는 주거시설 19곳, 산업시설 16곳, 차량 8곳, 임야 6곳, 야외 도로 5곳 등이다. 지난해보다 주거시설에서 3건, 산업시설에서 8건이 각각 늘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여전히 부주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은 16건이다. 화재는 최근 5년간 통계에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화재는 총 2878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 158명과 427억5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한 해 평균 600건 가까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겨울철 화재는 난방기기 과열과 전기 누전, 부주의가 주원인이다. 전기·가스·난방기기 안전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문어발식 멀티탭을 금지하고 난방기기는 각각 별도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또 전기장판은 접지 말고 평평하게 해야 하고 전기히터 주변 1m 이내에 가연물을 놓아선 안 된다. 특히 사소한 부주의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만큼 평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픽 뉴스

여성 연령별 출산율 현황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 단위: 명



연합뉴스 자료: 국가데이터처

열린마당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외식



김 의 영
서귀포시 식품위생팀장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더 이상 특별한 풍경이 아니다. 산책길은 물론이고 여행, 카페, 공원까지 우리의 일상 곳곳에 반려동물이 함께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준을 갖춘 업소’에 한해 운영 가능하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영업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운영 전 시설을 완비한 후 위생관리과에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운영 여부와 보완사항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반려인은 목줄 착용, 청결 관리, 안전 관리, 예방접종 증명서 지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비반려인 또한 반려동물 접촉 전 허락, 함부로 반려견에게 음식 주지 않기 등 펫 에티켓 준수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축제장 바가지, 영원히 퇴출시켜야

지난해 4월,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을 달궜다. 유튜브에는 관련 영상이 끊이지 않고 올라왔다.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축제 현장에서 2만5000원을 주고 주문한 순대볶음의 사진이었다. 내용물은 양배추 조금과 깨소금 그리고 순대 6조각이 전부였다. 이를 계기로 바가지 고발 글이 잇따라 게시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축제는 독특한 행사나 지역·지역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적잖은 지역 축제장에서는 말 그대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지역을 둘러보고 행사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에도 가격도 저렴해 온 가족이 나서도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조악한 상품·먹거리로 폭리를 취한다. 축제뿐만 아니라 그 지

역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제 현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천명하고 나섰다. 축제평가위원회에서 바가지요금 등으로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하면 제주도 지정 축제 선정 평가에서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준다. 평가 제외로 결정되면 지정 축제 대상은 물론 그로부터 3년간 재진입이 불가능하다. 축제 예산 보조율도 최대 50%로 제한된다.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축제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기존 대책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엄정한 집행이다. 온정에 이끌려 좌고우면 하다가는 바가지를 근절할 수 없다. 더불어 행사 입점료 등에 대한 근원적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 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